



권리옹호 : 접근성 및 편의시설 모니터링 / 연대활동 중 당사자 발



인식개선 : 인권거리캠페인 / 학교인식개선교육 강사활동



문화예술 : 장애인의 삶을 주제로 한 단편영화 제작 / 영화상영회 중 관객과의 대화시간



노동자 글

최승규 노동자

안녕하세요? 저는 탈시설을 하고부터 오방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처음으로 하고 있는 최승규입니다. 저는 스물여섯 살부터 24년을 시설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는 모두가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자고 정해진 틀에 따라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주위의 많은 도움을 받아 제가 뒤늦게 자립이라는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족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오방센터 체험 홈으로 입주하게 되어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제게 맞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찾으며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었던 겁니다.

15개월 만에 LH 아파트에 입주하여 저만의 공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에 있을 적부터 꿈꿔 왔던 자립생활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도 대접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로 인해 저는 매우 발전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의 바람이 있다면 더욱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의 기회가 주어져 자립생활을 해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일자리 같은 장애인 일자리 등이 많아져서 우리 중증장애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堂堂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의 권리 중심 장애인 일자리에 자긍심을 갖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박경한 노동자

「권중팀 일자리는 미래 가치가 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일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발달 장애인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학생인 것 같습니다. 장애 유형별로 일자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권익옹호, 인권강사, 문화활동 분야에 알아서 깊이 있게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직장인처럼 생활할 수 있어 더 보람있을 것 같습니다.



[전남지부]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광양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의 기본 이념을 기반으로 장애인도 차별 없이 보편적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누리며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시민적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지지/지원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힘으로 조직화한 단체입니다.

| 대표 직무 소개

권익옹호 활동	장애인의 권리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인식 전환과 제도 캠페인과 정책 참여 개선을 이끌어 냄
---------	--

〈무장애 버스 정류장 1호 만들기〉 저상버스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캠페인 전개
 〈SNS 인권수호자〉 홈페이지, 밴드, 뉴스, 이슈 공유, 집회 등의 다양한 온라인/오프라인 활동을 통한 장애인 정책 개선에 앞장 섬
 〈다 같이 동네 한 바퀴〉 걷기와 쓰레기 줍기를 결합한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과 교류하며, 사회적 책임을 실천

장애인식 개선 활동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는 활동, 최종중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여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장애인식 개선에 기여함
------------	--

〈이것도 노동이다〉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활동
 〈요리하고 권리 잡고〉 요리활동을 통해 무료 급식을 지원하고, 자립기술 향상과 권익 실현을 동시에 이루는 나눔과 성장의 활동
 〈'별일 있는' 종소리 음악대〉 노동자, 근로지원인, 활동지원사가 함께 협력해 만든 핸드벨 연주로, 사회에 울림을 전하고 변화를 촉구하는 뜻깊은 활동

문화예술 활동	예술과 창작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 역량을 키우고, 자신감을 증진시키는 활동
---------	---

〈당연한 자립, 당연한 권리, 당연한 행복 '나Do! JUmP UP' 치어리딩〉 치어리딩과 퍼포먼스를 통해 신체 건강을 증진하고, 협동심과 팀워크를 길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예술적 표현을 강화하는 활동
 〈자립 창작 공작소 '참새방앗간'〉 미술 창작과 협업을 통해 사회성과 자립 역량을 키우는 창작 중심 공간

광양시의회 시의원 간담회

- 무장애 도시 광양 정책 제안
- 장애인 정책 방향성 논의
- 시의원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한 권익 활동



무장애 버스 정류장 1호 만들기 캠페인

버스 정류장 접근성 개선을 위한 홍보와 지역주민 대상 인식개선 활동을 진행하며, UN 장애인 권리협약 속 이동 권의 중요성을 알림

당연한 권리, 당연한 자립, 당연한 행복 '나 DO! JUMP UP' 치어리딩

제 4회 무안마을 장애인 인권 영화제에서 진행된 치어리딩 공연! 신체 활동을 통해 활력과 체력을 발휘하며, 당연한 자립과 행복을 표현한 감동의 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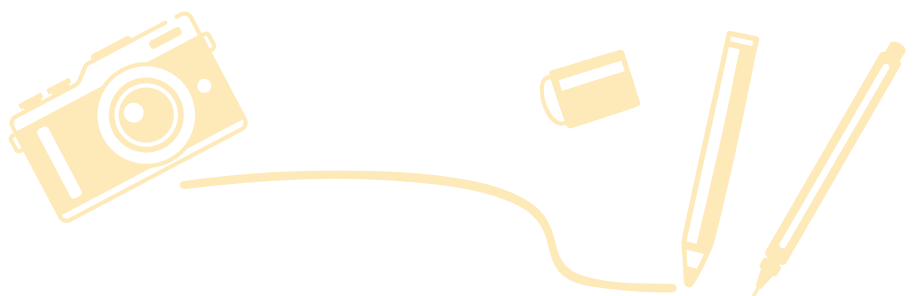
인식개선
직무

- 찾아가는 인권 “버스타고 GOGO”**
 저상버스를 직접 탑승함으로써 저상버스 이용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장애인도 버스타갈 수 있음을 알리고 장애인식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UN CRPD캠페인**
 장애인의 기본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만들어진 UN CRPD장애인 권리협약의 내용을 담은 피켓을 제작하여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장애인권리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식개선 그림책 만들기 “마음으로 그리는 이야기”**
 인권과 권리중심을 주제로 장애인 당사자가 그림과 글로 표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취업박람회 “이것도 노동이다”**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실현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성과를 사회에 널리 알려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편의시설 모니터링

권리중심 노동자들이 주변 상가들의 문턱 및 경사로 설치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있다.





난타 활동

권리중심 노동자들이 지역 노인복지센터를 찾아가 북소리에 맞춰 모두가 하나되는 난타 공연을 하고 있다.



버스타고 GOGO

권리중심 노동자가 저상버스를 이용하며, 교통 접근성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다.

이것도
노동
이다.



노동자 글

김준희 노동자

권익증진 공공일자리 권익증진 직무참여소감

저는 권익증진 공공일자리에 참여하는 김준희입니다.
 권익증진 직무를 참여하면서 제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참여하기 전에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목소리를
 내면 시민들이 듣지 않을까? 라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고 나니, 제 경험과 목소리가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은
 매일 조금씩 더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권익증진 직무는 다른 사람에 권리를 대신 지켜주는 일이라고
 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불편이나 차별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를
 알리고, 그것을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제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어 보였지만, 작은 목소리도
 모이고 이어지면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편견시선 꼬너티링을 통해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겪는 불편사항
 을 조사하여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시정 및 개선 해야 할 사항을 국민신문고에 올리기도 합니다.
 개선이 된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공원 입구에
 불법 주차를 한 차량으로 인해 수증 휠체어나 전동휠체
 어가 가까운 입구를 두고 먼길로 돌아서 공원을 이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해 주신 적이 있습
 니다. 권익증진 직무를 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제
 자신에 대한 인식입니다.



예전에는 저는 도움을 받는 사람, 보호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권리를 위해 함께 행동 할 수 있는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부심은 제가 매일 아침 일어나 출근할 때마다 느끼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는 단순히 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사회와 연결 되고, 제 권리를 만들기 가는 일자리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서로의 경험을 존중하며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지만 권리 중심 일 자리를 통해 지역 사회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생각으로 다시 힘을 냅니다. 앞으로 저는 권익 옹호 직무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싶습니다.

단순히 불편함을 알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안하고 변화시키는 역할까지 해내고 싶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장애인 동료들이 사회 안에서 스스로 권리를 말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앞으로 권리 중심 최첨단 맞춤형 공공 일자리를 통해 한 걸음씩 나아가며 차별 없는 사회 누구나 존중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식개선

-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캠페인**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리플렛과 피켓을 이용한 캠페인 활동을 실시함
- **SNS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3대 직무활동을 실시하여 개인 활동사진을 월2회 이상 개인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함
-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홍보 캠페인**
여수지역 주민센터와 공항, 역 등에 UN장애인권리협약 핸드북을 배치하고 홍보함
- **권리중심 최종장애인 공공일자리 취업박람회**
전시회, 홍보영상 상영,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 사례발표 등의 박람회를 개최
- **장애인권영상 제작, 홍보**
3대 직무활동 사진과 영상을 이용하여 장애인권영상을 제작하여 매월 센터 유튜브에 업로드함



권익옹호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활동

‘Disability Pride’ 2025년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전국집중결의대회에서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행진에 참여.



문화예술

장애인인식개선을 위한 문화예술활동 ‘캘리그래피 및 공예’

캘리그래피 작품을 활용해 피켓을 제작하여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캠페인에 활용하고 전시함. 장애인들이 직접 공예품을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포



장애인식개선

권리중심 최종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장애인이동권보장, 장애인자립생활, UN장애인권리협약(CRPD),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의 피켓 홍보 및 리플렛을 배포.

이것도
노동
이다.



권리중심은 지한테서 있어서 '병'이라고 표현해요. 어두운 숲길에는
밝고 따뜻한 길잡이가 필요하듯 동료들이 제게 해주는 피와 살의 만듦새나
편견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마음씨는 고민과 걱정의 장막을 걷는 빛이 되어
이른 또 다른 동료에게 도움을 주며 길을 밝혀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권리중심은 최중증장애인들에게 생명의 발판,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주지만
각각 사치는 이 일자리에 조명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각면히 알아주는 일이 없어요.
당장에야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잘 모른다는 말이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합니다. 권리중심은 정말 즐겁다고.
이 일자리가 있어 숨을 쉴 수 있다고.
저는 이곳에서 다채로운 미소를 보았고 앞으로 계속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권리중심은, 한쪽만 짚는 땅이 변하거든요.

조은혜 노동자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노동자 조은혜입니다.

저는 척수장애로 인해 몸에 통증이 있어 일반적인 노동환경에서는 장시간 근무를 지속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만나면서 장애가 있어도 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일자리로, 노동자들이 함께 회의하여 직
무를 정하고 협력해 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단순히 일하는 것을 넘어, 함께 결정하고 성
장하는 노동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는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의 3대 직무가 있습니다. (다음 계속)

권익옹호활동은 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을 사회문제로 알리고 개선하기 위한 일입니다. 혼자였다면 어려웠을 일이지만,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모여 메아리가 되었고 그 울림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활동에서는 연필 스케치를 배우며 인물화 전시회를 여는 뜻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한다고 생각했기에, 처음에는 하얀 도화지 위에 연필을 잡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초부터 하나씩 배우며 난생처음 완성한 그림으로 칭찬을 받았을 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또한 같은 대상을 그려도 노동자 각자의 개성이 드러난다는 점이 무척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작품으로 인정받는 사람은 전문 화가만이 아니다”라는 편견을 깨뜨릴 수 있었고,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 매우 뿌듯했습니다.

인식개선활동으로는 영상 공모전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제를 정하고 스토리를 구성하며, 역할을 나누어 촬영하는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동료들과 협력하며 서로의 강점을 발견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이 기관에서 사회복지사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수동적으로 이용하는 ‘복지의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장애인도 충분히 자조적이고 주체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존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일의 형태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애인의 일 역시 비장애인의 직업 환경에 맞추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장애의 유형과 정도, 그리고 개인의 창의성과 역량에 따라 새로운 직업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장애가 ‘제한’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개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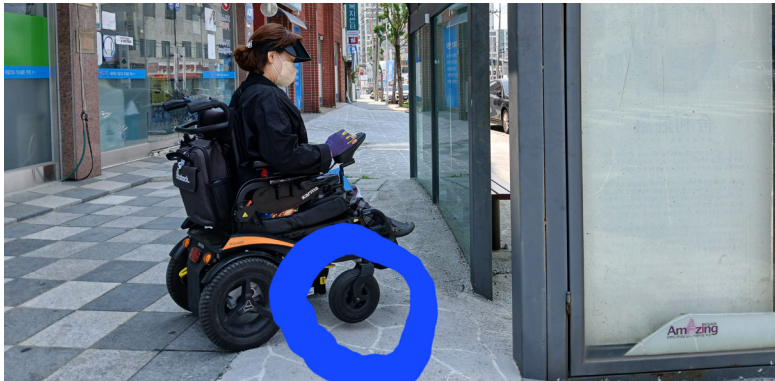
끝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불안정한 구조가 아니라 노동자가 원하는 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장애가 있어도 자신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고, 그 임금으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은 자립의 기본이자 당연한 권리입니다.

중증장애인도 자신의 역량에 맞는 직무로 사회에 참여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장애가 있어도 일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 그것이 제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권익옹호

전북지부 회의, 편의시설 모니터링, 전북 420 출범대회, ILP교육 등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활동가들이 2인 1조로 팀을 구성하여 버스정류장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동휠체어 이용자의 승·하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고 있다.

전북 420 출범대회에 참석하여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목소리를 내며 도로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IL 집단교육에 참여하여 자립 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함께 배우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노동자 글

구원서 노동자

· 구원서 출근을 매일 해서 여러가지 프로그램
참여하고 동료들과 소통을 통해 관계 개선이
좋아졌다.

심정환 노동자

· 심정환 - 술권을 해서 즐겁다.

안성덕 노동자

· 안성덕
장애인 일거리에 참여해서
집에 온거 있을때보다
건강이 좋아졌다.

박복심 노동자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직접 확인하고, 그 개선이 실제로 이루어
지는 모습을 보면서 큰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최향자 노동자

버스정류장 모니터링,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가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혁 노동자

다 좋아요



옥천지역의 인도 및 보행환경에 대한 편의시설을 모니터링은 장애인의 일상적 이동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천으로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전통북과 난타북을 활용한
매주 연습을 통한 옥천마을
장애인인권영화제에서 난타
공연



옥천군 행사인 포도복숭아축제 현장에서 권리중심맞춤형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는 캠페인을 하며 “장애인도 시민이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민들과 소통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알림



노동자 글

김병석 노동자

저는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 근무하면서 주로 권익옹호와 문화예술 활동을 맡고 있습니다.

권익옹호 분야에서는 편의시설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인도에 턱이 있어 휠체어가 오르내리기 힘든 곳이나 횡단보도에 단차가 있는 곳들을 조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또 공원에 장애인 화장실이나 장애인 주차장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도 살펴보고,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활동으로는 라인댄스를 배우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는 사람도 함께 춤을 출 수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 굿즈를 제작·판매하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 스스로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하게 돼서 너무나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수찬 노동자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일상을 살던 제가 권리 중심 일자리를 하게 된 지도 어느덧 반년이 되었는데요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던 제가 대학 공부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니 어머니도 기특해하시고 친구 하나 없던 제게도 서로 소통하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동료도 생겼습니다.

저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일한다는 보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출근한다는 것, 일한다는 것 자체가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한사람 뭉은 해내고 있는 것 같다는 성취감 때문인지, 뭐든지 해보고 싶다,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생겼고, 목표를 가지고 노력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 단계 성장한 듯한 뿌듯함을 느낍니다.

권리 중심 일자리가 일회성 사업에 머물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내년에도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지부]

가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대표 직무 소개

인식개선활동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강의 활동
권익옹호활동	장애인 편의시설 이용시 불편사항 등 개선 요구 활동
문화예술활동	스마트폰 활용한 창작활동 및 전시회 개최
집단캠페인	장애인식개선 캠페인(지하철, 길거리 홍보)



인식개선활동 (강의활동)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강의 진행



권익옹호활동 (편의시설 모니터링)

지역장애인들의 접근 편의성을 위한 모니터링



문화예술활동 (창작활동)

스마트폰을 활용한 창작활동



집단캠페인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지하철)



집단캠페인 (인식개선 캠페인)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진행(길거리)



문화예술활동 (창작활동)

팀원들의 단합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워크숍 진행

노동자 글

이범진 노동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인식개선활동을 맡아 강의와 캠페인을 활동했습니다.

강의에서는 권리중심 관점(자결·참여·평등)을 중심으로 장애에 대한 오해와 차별 구조를 사례와 참여형 활동으로 설명했습니다.

캠페인은 지하철과 부산 강서구 거리와 온라인을 병행하며 시각자료와 체험 프로그램으로 시민의 실천을 유도했고,

현장에서 많은 이들이 작은 실천 약속을 남기는 등 긍정적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이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게 된 점이 특히 의미 있었습니다.

활동 과정에서 시간·자원 제약과 깊은 편견으로 인한 한계를 느꼈고, 장기적·단계적 교육과 당사자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는 권리중심 교육의 표준화와 지역 연계형 지속 프로그램을 통해 실천을 확산 시키고자 합니다.

이번 경험은 저에게 권리중심의 실천적 의미를 확인시켜 준 값진 기회였습니다.



부산 남구 지역의 보도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남구청에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발달장애인 권리 주장 활동인 '피플퍼스트'와 모두가 이용 가능한 환경 조성을 위한 '모두의 1층' 활동에 진행 하였다. 아울러 지역 활동을 넘어 전국적으로 연대하는 캠페인에도 함께 참여하였다.

